|  |  |  |  |  |
| --- | --- | --- | --- | --- |
| **Unit 20 No. 1** |  |  |  | [정답] ⑤  [소재] 동화 작가이자 삽화가인 Leo Lionni  [해석] 국제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삽화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였던 Leo Lionni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1939년 미국에 올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것이 그가 그림 그리는 법을 독학한 방법이다. 그는 거의 우연히 아동 도서를 쓰고 그것에 삽화를 그리게 되었다. Lionni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손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잡지에서 종잇조각들을 뜯어내어 그것을 캐릭터로 사용하고 이야기를 구성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현재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라는 제목의 아동 도서로 알고 있는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삽화의 주요 표현 수단으로 콜라주를 사용한 최초의 아동 도서 작가이자 삽화가가 되었다. Lionni는 40권이 넘는 아동 도서를 쓰고 삽화를 그렸다. 1982년, Lionni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지만, 그는 그리기, 삽화 그리기,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사망했다.  [해설] 1982년, Lionni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지만, 그는 그리기, 삽화 그리기,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In 1982, Lionni was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but he kept working in drawing, illustrating and teaching.)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illustrator 삽화가 |
|  | | |  |
| Leo Lionni, an internationally known designer, illustrator, and graphic artist, was born in Holland and lived in Italy until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39. As a little boy, he would go into the museums in Amsterdam, and that’s how he taught himself how to draw. He got into writing and illustrating children’s books almost by accident. Lionni tore out bits of paper from a magazine and used them as characters and made up a story to entertain his grandchildren on a train ride. This story became what we now know as the children’s book titled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He became the first children’s author/illustrator to use collage as the main medium for his illustrations. Lionni wrote and illustrated more than 40 children’s books. In 1982, Lionni was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but he kept working in drawing, illustrating and teaching. He passed away in October 1999 in Italy.  a b c | | |  |
|  | | |  |